SK하이닉스 광고, 구글 '10월 리더보드' 선정

기업 광고 '청주 직지편' 인기

SK하이닉스 광고 영상 '청주 직지편'이 구글이 선정한 히트 광고에 뽑혔다.

2일 SK하이닉스 뉴스룸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 아시안 퍼시픽은 '2019년 10월 리더보드'에 SK하이닉스 청주 직지편을 선정했다.

청주 직지편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를 만든 청주가 세계적인 반도체 낸드플래시를 이어서 만든다는 내용을 위트있게 표현한 광고다.

유튜브에서는 국내에서는 3000만뷰를 넘어서는 인기를 끌었으며, 광고를 넘기지 않고 보는 비율도 높았다. 구글은 긍정적인 댓글과 영상 공유량, 광고 검색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리더보드에 선정했다.

청주직지편은 아태지역 수상작들과 함께 전세계 광고마케팅 전문가들이 보는 '캠페인 아시아'와 유튜브에서 자체 운영하는 '씽크 위드 구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광고 영상 '청주 직지편' /SK하이닉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이천 지역 특산품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그린 '이천 특산품'편으로도 뜨거운 반응을 받은 바 있다. 청주 직지편과 함께 '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3개 부문을 수상했으며, SK하이닉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29만명을 넘어섰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예탁원, 사회공헌대상 중기부장관상 수상

창업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기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14회 2019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서 일자리창출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그간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상생금융사업,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K-Camp) 운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 3년간 총 150여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했고,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신(新)중년 금융교육강사, 박물관 시니어 도슨트 사업 등을 통해 청년,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이재호 한국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본부장(왼쪽)과 이승환 한국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추진단 선임조사역이 '일자리창출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발 묶인 '데이터 3법'

기자 수첩
구 서 윤
〈산업부〉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이 묶이게 됐다.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여야간 정치 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하면서다.

데이터 3법이 국회에 올라온 지 1년이 흘렀고, 이번에는 여야 3당 대표가 처리를 합의한 법안이었던 만큼 IT(정보기술) 업계가 갖는 실망감은 상당하다.

업계가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외치는 이유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불리지만 정작 데이터 경쟁력은 OECD 최하위에 속한다. 이미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규제에 막혀 서비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매번 통과에 난항을 겪어 규제로 꽉 막힌 형국이다. 이대로라면 데이터 선진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가명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게 중심이다.

물론 통과만이 능사는 아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하지만 이를 우려해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것과 같다.

최근 만난 한 IT 업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여태 막혔던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데이터 산업은 사망 선고를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가 경제·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yuni251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3일 (음 11월 7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48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쩌겠나. 60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72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84년생 운전할 때 양보하자.

소 37년생 정든 친구가 떠나간다. 49년생 파란색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61년생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73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85년생 삶의 지혜를 책으로 얻으니 공부를 열심히.

호랑이 38년생 정체되어 있으면 낙오된다. 50년생 마른논에 물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62년생 이웃과의 거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74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86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토끼 39년생 무지개가 뜨니 좋은 일이 있다. 51년생 불평을 줄여보도록. 63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75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87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용 40년생 이만하면 원더풀한 인생. 52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니 실망은 금물. 64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76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다. 88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뱀 41년생 모르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53년생 고인 물은 흘려보내야 썩지 않는다. 65년생 직장에서 기쁜 소식이 온다. 7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89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말 42년생 자식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 54년생 욕심으로 신망을 잃는다. 66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78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90년생 졸작이 명품으로 둔갑하는 순간이 온다.

양 43년생 이웃집 불구경에 정신을 뺏긴다. 55년생 행운이 불어오니 일이 잘 성사. 67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지는 날. 79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91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원숭이 44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다. 56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인내가 필요. 68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80년생 호랑이띠와 다투지 마라. 92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닭 45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다. 57년생 명예손상이 우려되니 말조심. 69년생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 좀 더 노력. 81년생 확실한 의사 표현이 관계를 더 좋게 한다. 93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개 46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58년생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 70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82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94년생 이직보다는 유지를.

돼지 47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운이 활짝 열린다. 59년생 계획도 없이 일을 시작하다가는 실패하기 십상. 71년생 새로 시작한 일이 뜻대로 진행. 83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95년생 첫눈에 반하는 이성이 나타난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4			
	1	2	5		8	3	4	
		3		7		9		
	2	7	1		6	4	9	
				4				
	6	9	7		3	5	2	
		1		3		2		
	7	5	4		9	8	6	
			2		7			

5			9		8			2
	9	4	1		5	6	3	
6		3		1		9		5
	1		2		3		7	
4		9		6		3		1
	6	2	7		9	8	5	
3			4		1			9

스도쿠 정답

9	5	1	7	6	2	4	3	8
3	6	8	9	1	4	5	7	2
4	7	2	5	3	8	1	9	6
1	2	5	3	8	7	9	6	4
7	3	6	2	4	9	8	5	1
8	9	4	6	5	1	7	2	3
2	8	9	1	7	6	3	4	5
6	4	3	8	9	5	2	1	7
5	1	7	4	2	3	6	8	9

3	1	7	2	5	6	8	4	9
9	6	2	1	8	4	7	5	3
4	5	8	9	3	7	2	6	1
1	8	3	7	6	5	9	2	4
6	7	4	3	9	2	5	1	8
8	2	5	4	7	1	6	9	3
7	3	6	5	4	9	1	8	2
2	4	1	8	2	3	9	7	5
5	9	9	6	1	8	4	3	7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경영자 사무실과 풍수

심리를 반영하는 좋은 풍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미국의 백악관에는 오벌 오피스라는 곳이 있다. 오벌은 영어로 타원형, 달걀 모양이라는 뜻이다. 오벌 오피스는 대통령 집무실을 말하는데 이름 그대로 타원형을 하고 있다. 업무를 볼 때 사용하고 중요한 연설을 하는 곳이어서 백악관의 상징이다.

오벌 오피스를 풍수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훌륭한 구조이다. 둥그런 모양의 공간은 좋은 기운이 강력하게 모이는 곳이다. 중요한 공간을 둥근 모양으로 만들면 에너지가 집중된다.

오벌 오피스처럼 좋은 기운이 모이는 또 다른 구조는 돔 형태이다. 천장이 돔처럼 둥근 공간은 생기가 모여든다. 기가 한곳으로 모이면 에너지가 응축되고 그 에너지는 재물이 모이게 한다.

서양에는 유명한 돔 형태의 건축물이 많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은 그중에서도 으뜸이다. 로마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판테온 신전은 말 그대로 신들을 위해 만든 공간인데 거대하고 완벽한 돔 구조를 하고 있다. 로마사람들이 풍수를 고려한 건 아니겠지만 동서양 모두 돔 형태가 기운을 모아준다는 인식이 있던 것은 아닌가 싶다.

천장이 높은 공간이 창의력에 도움을 준다는 건 입증된 사실이다. 좋은 기운이 모이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산실로도 적합하다. 천장이 높은 공간에서 공부한 아이들의 성적이 더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영자의 눈은 현재와 미래를 보고 머리는 어떻게 하면 더 도약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그렇기에 경영자에게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중 해야 할 것이 좋은 기운을 모을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갖추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3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39호